동아시아 불교학·문헌사 등 5월 대형 학술행사 '풍성'

동아시아 불교 문헌 교류부터 한국과 중국 불교학계 경향을 분석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HK연구단(원장 겸 단장 김종욱)은 5월 18일 오전 10시 교내 신공학관 4212호 강당에서 봉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에 유전된 한국불교 문헌과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불교 문헌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으로 전해졌고, 활용됐는지를 조명하는 한·중·일 불교학자들의 강연과 논문들이 소개된다.

오전 강연에서는 팡구앙창(方廣錩) 상하이사범대 교수가 '중한불교 교류 영향'을, 오치아이 토시노리(落合俊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교수가 '일본에 전해진 고려금자대장경-그 저본의 계보를 찾아'를 주제로 강의한다.

오후에는 조세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박사가 '일본 고산사에 유전된 한국불교문헌'을, 당위엔(定源) 상하이사범대 교수가 '의천이 송나라에 들여온 고려불교문헌의 서전(西傳)'을, 김천학 동국대 교수가 '〈보살계본종요초〉의 문헌적 가치와 태현 인식'을 발표한다.

한중일 학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동아시아에 유전된 한국불교문헌 연구의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 불교학 연구의 최신 성과와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서울대 철학연구소(소장 강진호)는 5월 18~19일 양일간 서울대 14동 204호에서 '한중 불교학의 대화-최신 연구성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불교학 연구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논문들이 소개된다. 첫날 학술대회에서는 △인도와 중국 불교 논서를 통해 본 'Buddha-vacana' 개념의 의미 변천(조은수, 서울대 교수)을 비롯해 △현대 불교교학의 흥기(興起)(저우구이화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중국 초기불교의 법신(法身)에 대한 이해(하유진, 서강대 철학연구소) △불법의 진실과 방편에 대한 시론(장창성,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이해력과 신해력(信解力)에 관하여(펑우안전 중산대학 철학계) 가 발표된다.

둘째 날에는 △결정취(決定趣)와 견도(見道)(밍시엔, 우한시불교협회 부회장) △소밀(疏密)과 횡수(橫豎), 두 시선의 교차-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제1권 '초장중가의(初章中暇義)'를 중심으로(조윤경, 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강진호 서울대 철학연구소장은 "최근 불교학계의 새로운 동향으로 중국 불교학계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이제 중국의 학문적 수준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위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대가 중국의 학자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최초의 학술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석학 마크 시더리츠 교수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경향을 점검하고 서로 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술 교류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등 주요 불교계 학술단체들도 춘계대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5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과 중도 개념의 쟁점'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봉축 맞아 국제 학술대회
韓불교 문헌들 전파 조명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한·중 불교학계 경향 살펴
석학 시더리츠 교수 참석

불교학회·불교학연구회 등
주요 학술단체들 춘계대회
제주 봉려관 스님 조명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바정토-불교적 이상사회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제2회 성운학술상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 불교 중흥조 봉려관 스님의 항일운동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예정돼 있다.

(사)봉려관선양회와 두옥문도회는 5월 25일 오후 2시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의 여성리더 봉려관 항일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비구니 항일운동이 공론화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신성민 기자

거세지는 진각종 총인일가 사퇴운동

진각복지재단 성폭력사건 위드유연대 기자회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진각복지재단 성폭력사건 위드유연대가 5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각종 총인과 아들 A씨, 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의 사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의 아들 A씨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재단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진각종 총금강회(신도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총인일가 사퇴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진각복지재단 성폭력사건 위드유연대'는 5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 일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내부제보실천운동·다산인권센터·동덕여대총학생회·성평등불교연대 등 20여 불교·시민단체가 동참했다. 특히 진각종의 총신도회인 총금강회도 기자회견에 참석, 총인일가와 재단 대표이사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위드유연대는 △서울시 특별감사관들의 부실한 조사 △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의 피해자 협박 △총인 회정 정사와 정계인사의 유착관계 등을 문제제기했다. 위드유연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재단 대표이사인 원혜 정사(총인 前비서실장)는 피해자 면담에서 "A는 좀 못생겼으니까 나 같이 잘생긴 정사님이 그러면 괜찮고?" "시집 못 간다"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또한 총인 회정 정사는 녹취록에서

재단 대표이사 피해자 면담서
2차 가해성 발언, 녹취 공개
진각종 신도회 "지도부 퇴출"
대표이사 "발언 취지 왜곡돼"

"종암경찰서 정보관이 찾아와 고소장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며 "이 정보관 승진을 위해 국회의원 B에게 전화해 잘 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위드유연대는 이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총인과 종암경찰서 정보관, 울산지역 국회의원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위드유연대는 "이번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진각종 총인은 종암경찰서 정보관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의 조사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재단 대표이사는 울산 국회의원을 통해 해당 정보관 승진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면서 "진각복지재단의 '슈퍼 갑'이라 할 수 있는 로열 패밀리의 위력에 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서는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도 총인일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식 총금강회장은 "총인으로서 본인 자녀를 복지재단 관리직에 앉히고, 참회하지 않은 채 변명과 회피에 급급하며 막말과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모습에 70만 신교도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총인일가와 대표이사의 반인륜적이고 반종단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당사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종단에서의 퇴출을 위해 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드유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혜 정사는 "피해자들과 나눈 3시간의 대화 중 안 좋은 부분만 악용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다른 시설 발령을 원하면 해주겠다고 얘기한 게 대부분"이라며 "소송이 길어질 때 힘들지 않겠냐는 걱정과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이었다. 피해자가 불편했다면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효잔치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오늘은 스님들이 어르신 아들·딸"

조계사 제1회 장수어르신 초청 효잔치

서울 조계사가 어버이날을 맞아 사찰 앞뜰을 거대한 효잔치 마당으로 꾸몄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8일 제1회 장수 어르신 초청 효잔치를 개최했다. 청명한 날씨 속에 펼쳐진 이날 효잔치에는 종로구 관내 17개동 80세 이상 어르신 170명과 80세 이상 조계사 신도 100여 명이 초청돼 육개장과 다과 등 점심을 공양받았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초청해 자리를 마련하고 보니 팔순이 넘은 저희 어머니가 생각난다"며 "오늘만큼은 스님들이 어르신들 아들, 딸이 돼드리겠다"고 말했다.

함께 효잔치를 준비한 신도들을 대표해 정미령 신도회 수석부회장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좋은 것을 내주고 항상 기도해 주신다. 시대가 지나도 효는 모든 것의 근간"이라며 "오늘 신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며 준비했다"고 말했다.

광화문에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강의를 끊어준 백송대학에서 수강하고 있다는 김다선(84) 씨는 "스님들께 공양을 받으니 황송할 따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금강대 노조 파업 교육부 감사요청

부당징계해고 등 사유로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강대학교지부(이하 금강대노조)가 5월 7일 조합원 부당징계해고·단체협상 조정결렬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금강대노조는 4월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금강대노조는 "2017년 7월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학교 측이 위임장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교섭해태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금강대노조는 이와 함께 최근 전임 총장의 성추행 의혹과 학교 운영상 비위사실 등을 언론에 알린 조합원에 대한 학교 측 징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강대노조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노조 지부장을 해임하고, 조합원 2명을 파면·해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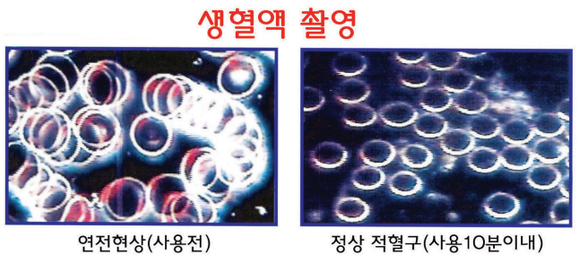
유휘종 지부장은 "학교 운영에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데도 책임지고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한 노조를 학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며 탄압하고 있다"면서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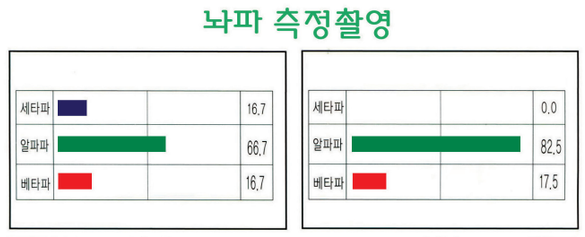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놔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